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 ‘RE100 산업단지 조성’ 환영

“에너지 대전환 역사적 전환점이자 지역균형발전 앞당겨”

인허가 지연 등 복합적 규제로 위축됐던 사업 탄력 기대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가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정책 발표'에 대해 한동안 주춤했던 사업들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발표된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정책으로써 이에 신안군민과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는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인허가 지연, 제도적 불확실성, 주민 수용성, 계통 접속 문제 등 복합적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있어 매우 어려움 속에 위축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RE100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사업자에게는 분명한 제도적 방향성과 실질적 돌파구를 제시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신안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풍부한 해양자원과 주민참여형 발전모델을 기반으로 에너지자립과 지역 소득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RE100 수요기업 유치, 지역 재생에너지 100% 활용, 에너지 신도시 조성 계획은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신안은 그동안 정정에너지 확산과 지역발전을 위

한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 해왔고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이 정부 정책을 통해 제도화되는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순환과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신안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자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군의 전망이다.

신안해상풍력발전사업의체는 “이번 정책이 제도적 규제 완화, 전력계통 확보, 산업입지 지정 등 실행력 있는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경우,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더는 답보 상태에 머물지 않고, 명실상부한 국가 에너지전환의 주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협의체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이번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과 함께 대한민국 RE100 산업단지의 모범 사례를 신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최선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통해 신안군이 국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상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5월 신안 앞바다에서 상업 운전을 개시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 건설 모습.

<전남도 제공>

‘어르신 점심 한끼’ 목포시 사랑의 밥차, 상반기 7000여명 이용

41개 단체서 이미용 등 자원봉사

목포시가 어르신들에게 점심 한끼를 제공하는 ‘사랑의 밥차’가 호응을 얻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목포건어물절감센터 3층에서 진행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상반기 운영을 지난 15일 종료했다.

이 기간 ‘사랑의 밥차’는 17회 운영했으며, 회당 410여 명 모두 6970여 명이 이용했다.

또 41개 단체에서 회당 56여 명의 재능기부 봉사자들이 참여해 이미용과 경관제조, 가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사랑의 밥차는 지역 독거노인 등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주 1회 무료로 점심 식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IBK기업은행의 후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목포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목포시의 올 하반기 사랑의 밥차는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12회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완도 전복산업 산·관·연 협의체 ‘양식어가 3중고’ 해법 모색

할당제 도입·먹이 개발 등 논의

전복 양식어민들이 과잉생산과 가격하락, 고수온 피해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전남도,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복산업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복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관·연 협의체 총회’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전복 생산량 증가와 산지 가격 하락, 고수온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복산업 현안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총회를 개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는 이날 총회에서 ‘전복 폐자 부착 생물 제거기술 및 전복 한계 수온 구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는 평생이 모자반, 구멍 갈파래, 폐기 물김 등 해조류를 이용한 전복 종자용 배합사료 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는 참점복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 기술 개발 연구 과정을 발표하고 앞으로 김전복 모패를 조기 시험 분양하겠다고 밝



신우철(오른쪽 세번째) 완도군수가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전복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관·연 협의체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했다.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전복 가두리 대체품종 개발을 위해 새조개, 성게, 피황고동, 크레이피쉬 등 대체 품종 양식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복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종자 산업의 할당제 도입과 고수온기 대체 먹이 개

발, 전복 폐사 원인 규명, 신속한 피해 조사 매뉴얼 등 건의가 이어졌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금의 전복산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반드시 호기가 올 것이다”라며 “총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 입안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위커블삼향’ 걷기동아리와

무안군 ‘클린 무안 캠페인’

무안군은 지난 12일 ‘위커블삼향’ 걷기동아리와 함께 ‘클린 무안 실천 캠페인’을 열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걷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연계한 실천형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일상 속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다.

‘함께 걷고 쓰레기 줄고 환경을 지키자. 깨끗한 무안’이라는 목표 아래 삼향읍 대죽도 일원과 남악 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위커블삼향’ 회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생활 쓰레기 수거와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특히 걷기와 연계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동시에 지역 환경 보호에 이바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캠페인이 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고 걷기 문화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과 실천 활동을 계속 추진해 ‘지속가능한 무안’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영암형 공공주택’ 60호 청년·신혼부부 입주 완료

예치금 100만원으로 거주

영암군은 2025 영암형 공공주택 60호에 청년과 신혼부부가 입주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영암형 공공주택은 민선 8기 영암군이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중점사업이다.

영암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기관공급 협약을 체결해 총 200호 공공주택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30호에 이어 올해 삼호용암LH1단지 50호, 학산LH 12호 등 총 62

호를 공급했다.

영암군은 지난 5월 총 60호 입주자를 최종 확정하고 동·호 배정 추첨을 진행했다.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고 예치금 100만원으로 2년간 거주하게 된다. 2회 기간 연장하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 62호 중 학산LH 2호는 현재 추가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를 축하한다”며 “입주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자립하고 아이도 편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

목포해양대-수산식품지원센터 인력양성 협약

목포해양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지역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직무분석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재직근로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수산식품 분야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

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실질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협력 관계를 구축기로 했다.

김연원 목포해양대학교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장은 “협약을 계기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재직자 대상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

겠다”고 말했다.

운영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산업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박영집 기자 kyl@kwangju.co.kr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해남 불법 주차 엄금

6대 불법 금지구역 홍보 캠페인

해남군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6대 불법 주차차 금지구역 홍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

6대 불법 주차차 금지구역은 ▲인도(보도)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군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장소다.

이 구역에서 위반 시 일반구역 4만원, 소화전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최근 읍·면·동·리 내 공익신고와 주민 신고가 늘면서 관련 분봉도 증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일시 주정차 차량에 문자로 단속 안내를 하고 있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찍어 등록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건전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정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하반기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임차비 지원 2년으로 확대

영광군이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18일까지 모집한다.

올해부터는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비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청년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는다.

하반기에는 총 7개소(리모델링 3곳, 임차비 4곳)를 선별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45세 이하 (1980~2006년 출생자)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 초기 청년 창업자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영광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